

제주 방언의 보조용언 연구

문 순 덕*

〈차 례〉

- I. 서론
- II. 보조용언의 의미·통사 특성
- III. 결론

I. 서론

국어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갖는 것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다. 보조용언이란 단어 뜻 그대로 의미와 통사 기능 면에서 본용언을 도와 주며, 본용언의 뒤에 쓰인다. 보조용언에는 본래부터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것과, 본용언에서 보조용언으로 문법화된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방언에 쓰이는 보조용언의 종류와 문법 기능 등을 살펴보겠다. 대략 논의할 보조용언은 '두다, 불다(버리다), 나다, 말다, 잇다(있다), 가다, 오다, 보다, 주다, 지다, -고프다(-고 싶다)' 들이다.

중국어에서 보조용언을 분류한 것을 보면 최현배(1971 : 397~536)에서는 19개의 범주로¹⁾, 서정수(1994 : 544)에서는 11개의 범주로²⁾ 구분하고 있으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탐라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1) 최현배가 분류한 보조용언의 범주는 아래와 같다.

(1) 지움(부정) :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 (2) 하임(사동) : 하다, 만들다. (3) 입음(과동) : 지다, 되다. (4) 나아감(진행) : 오다, 가다. (5) 끝남(종결) : 나다, 내다, 버리다. (6) 섬김(봉사) : 주다, 드리다, 바치다. (7) 해보기(시행) : 보다. (8) 힘춤(강제) : 쌓

며, 여기서는 두 자료에 기초해서 논의하겠다.

II. 보조용언의 의미·통사 특성

본용언은 서술어로서 자립성이 있으나 보조용언은 대체로 자립성이 부족하며,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개입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다른 성분이 개입되면 의미와 통사 특성이 달라진다. 즉 보조용언이 본용언과 통합될 때에는 일정한 연결어미를 요구하는 제약이 있는데 두 용언 사이에 '-서'가 개입될 수 있거나, 휴지가 있으면 둘 다 본용언이고, 성립되지 않으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이다. 물론 'V₁-아+V₂' 통사 구조에서 합성어와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본용언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지만, 보조용언이 생략되면 본용언 자체가 서술어가 된다. 이때 그 의미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한 문장 내에서 의미·통사 기능 상 보조용언은 생략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조용언은 준자립성(본용언과만 공기하는 의존성이 있다.)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보조용언은 주로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 -게, -지, -고'에 후행한다. 보조용언은 본용언의 의미를 더해 주면서 통사 특성도 지니고 있다. 보조용언에는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가 있다. 여기서 논의하려는 보조용언은 대부분 보조동사이고 '-고프다'만 보조형용사이다.

-
- 다, 대다. (9) 마땅함(당위) : 하다. (10) 그리여김(시인) : 하다. (11) 거짓부리(가식) : 체하다, 양하다. (12) 지나간 기회(과기) : 변하다. (13) 지님(보유) : 놓다, 두다, 가지다, 닳다. (14) 바람(희망) : 싫다, 지다. (15) 미룸(추측) : 듯하다, 듯싶다, 범하다/보다, 싶다. (16) 잡어치(가치) : 만하다, 직하다. (17) 모양(상태) : 있다.
- 2) 서정수가 분류한 보조용언의 하위 범주는 다음과 같다.
- (1) 완결 : 버리다, 나다, 내다. (2) 수혜 : 주다, 드리다. (3) 시행 : 보다. (4) 반복 : 쌓다, 대다. (5) 보유 : 두다, 놓다, 가지다. (6) 기동 : 지다. (7) 사동 : 만들다(/하다). (8) 지속 : 가다, 오다, 있다. (9) 결과상 : 있다. (10) 희망 : 싫다. (11) 추정/ 의도 : 보다, 싶다.

1. <두다>

'두다'는 '놓다, 가지다'와 더불어 보유의 보조동사이다. 제주 방언에서 그 쓰임은 다음과 같다.

- (1) 가. 가의신디 말 곶아 두영 와서. (그 아이에게 말을 해 두고 왔다.)
나. 이디 놔 두라. (여기 놓아 두라.)
다. 가윈 떡광 옷은 두영 갖저. (그 아이는 떡과 옷은 두고 갔다.)

(1가, 나)에서 보조동사 '두다'는 연결어미 '-아'와 공기한다. (1가)는 화자가 청자에게 보고하는 형식인데, 제삼자인 '그 애'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 준 상태라는 뜻이다. 혹시 그 응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애'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그것을 기대하는 화자의 심리 상태도 드러난다. 만일 본동사 '곶다(말하다)'로 문장이 끝난다면 단순히 말하는 행위 자체로 완료될 수 있는데, 보조동사가 쓰이면서 화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되었다. (1나) 역시 본동사 '놓다'만 쓰인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이곳에 둔다(置)는 의미만 있는데, 보조동사 '두다'가 쓰이면서 그 의미는 좀더 유보적인 상태가 된다. 명령의 정도에서 조금은 약한 명령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때 '두다'는 그 상태 유지의 의미가 강하다. 보조동사 '두다'는 본동사의 행위를 그대로 하게 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1다)에서 '두다'는 본동사로 쓰이고 있으며, 그 의미는 '놓다(置)'이다. 따라서 보조동사로 문법화되어도 그 의미에는 큰 변화가 없다.

- (2) 가. 난 누어 돛서 말 곶앗저. (나는 누워 있으면서 말을 했다.)
나. 우린 무똥이 사 두서 방안을 솔궤저. (우리는 현관에 서서/서 있으면서 방안을 살궤다.)

(2)에서 '두다'는 '-돛(두)서'처럼 '-서'와 결합된다(문순덕, 2000 참조). 물론 (2)처럼 띄어쓰기를 하면 보조동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어돛서'처럼 한 단위로 발화된다. '두다'가 보유의 의미를 지닌 보조동사인 데 여기서는 그

상태를 보유한(누워 있는 상태에서/서 있는 상태에서), 즉 '상태지속'의 의미가 더 강하다. '두다'에 보조동사의 문법 기능이 있는 것은 중앙어와 같은데 (2)에서 보듯이 선어말어미의 기능이 있는 것은 제주 방언의 특징이다. 선어말어미로 쓰일 때는 반드시 '-암서/-아서'와만 결합한다. 따라서 '-아 둬서/두서' 자체가 '-아 있다'의 의미로 쓰인다. 보조동사 '두다'가 [과정성]의 의미 자질을 지니므로 선행 요소는 동사이다.

2. <불다(버리다)>

제주 방언 '불다/비다'는 중앙어 '버리다'에 해당하는 보조동사이며, '나다, 말다'와 더불어 종결 보조동사이다. 우선 '불다'의 기능을 살펴보고 나서 차례대로 논의하겠다.

(3) 가. 그 껌기 데껴 불라. (그 고기 던져 버려라.)

나. 내가 일하단 보난 떡은 먹어 불었저. (내가 일하다 보니까 떡은 먹어 버렸다.)

다. 가윈 나안티 주도 안행 가 불었저. (그 아이는 나에게 주지도 않고 가 버렸다.)

(3가)에서 '고기 던져라'는 문장으로 쓰인 경우에는 단순히 고기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던지는, 이동하는 의미만 있다. 보조동사 '불다(버리다)'가 쓰인 경우에는 던지는 동작을 완료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대상을 제거하다'는 의미가 더해졌다. 즉 구체적인 대상인 '고기'의 실체를 없애라는 뜻이 있다. 그 고기가 상해서 처리하기 곤란했는데 제거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다투니까 아무도 가질 수 없게 제거해 버리라는 뜻도 가능하다. 보조동사 '불다'에는 행위의 완료에다가 '제거하다'라는 화자의 주관적 견해가 반영되었다. (3나)에서 보조동사 '불다'도 동작의 완료로 쓰였으며, 화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누군가 떡을 먹어서 먹는 동작도 완료되었지만 화자의 아쉬움이 내포되어 있다. 즉 화자가 떡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아쉬움이 들어 있다.

(3다)에서 '불다'는 기대의 어긋남(이기동, 1986 : 218)의 뜻이 강하다. 즉 '나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기대했는데, 화자의 희망/기대와 상관없이 주어의 행동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그래서 화자의 아쉬움/원망의 의미가 보태어졌다.

제주 방언에서 불다(버리다)가 본동사보다는 보조동사로서의 쓰임이 빈번한 것은 동사 '데끼다(던지다)'가 본동사 '불다'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주 방언에 비해서 중앙어인 경우 '이 떡을 버려라.'처럼 본동사의 주 기능이 있다. 보조동사 '불다'는 본동사의 행위가 완료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불다' 자체의 어휘 의미가 현재의 위치에서 '사라지게/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보조동사 '불다'는 동작성 동사이며 '데끼다, 먹다, 가다'인 동작성 동사와 공기한다. 이 보조동사가 쓰이면서 본동사의 동작이 완결됨을 알 수 있다.

3. <나다>

'나다' 역시 종결 보조동사이다.

- (4) 가. 난 이디서 놀아 낫저. (난 여기서 놀아 났다.)
나. 어명도 울어 낫저. (어머니도 울어 났다.)
다. 이 말 들어 낫디가? (이 말 들어 났습니까?)

(4)에서 보조동사 '나다'는 주로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앗-'과 결합되어서 '행위 완료'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과거에 그런 행동/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나다'는 일회적인 행동의 의미이다. 보조동사 '나다'는 선행 본동사의 동작을 완료하는 의미도 있지만 '경험'의 의미가 더 강하다. 제주 방언에서도 연결어미 '-아'와 보조동사 '나다'가 공기한다.

(4가)는 '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장소에서 논 적이 있다'는 뜻이다. (4나)는 어머니도 울었던 경험이 있다는 의미이다. 보통 우리들의 의

식 속에는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한다. 그런데 화자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가 우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문장이다. (4다)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말을 들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아 나다'에는 과거 완료의 문법 기능이 있다. 동사 '나다'의 원래 의미가 '나오다(生, 出)'인데 보조동사로 기능하는 예문 (4)에서도 본동사의 의미가 남아 있다. 즉 '놀다, 울다, 듣다'라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뜻이며, 그 행위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동사의 행위를 경험하고, 지금은 그 경험에서 벗어 났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나다'의 선행 요소는 동사이다.

(4')가. 난 이디서 놀았저.

나. 어명도 울었저.

보조동사가 쓰인 (4)와 보조동사 '나다'가 생략되고 본동사만 쓰인 (4')를 비교해 보면, 문장 (4')는 주어의 객관적인 행동의 완료인데 보조동사가 쓰이면 단정적인 의미보다도 '과거 경험'의 의미가 더해져서 화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더 드러난다.

(5) 가. 밧디 검질이 복작 닳저. (밭에 김이 많이 닳다.)

나. 이 동네 영장 닳저. (이 동네 초상 닳다.)

(5)에서 '나다'는 본동사로 쓰이고 있으며, '나오다(生, 出)'의 의미이다. 이 때 '나오다'도 과거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해서 행위가 발생하는 도달점까지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조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본동사의 행위에서 출발해서 보조동사라는 행위의 도달점까지의 의미가 강하므로 주로 과거시제 형태소와 결합된다. 그래서 그 의미도 '종결'이라고 한 것이다.

(6) 그 애가 울고 나면 물어 보자.

(6)에서 보듯이 중앙어에서 보조동사 '나다'는 연결어미 '-고'와도 공기하

는데 제주 방언에서는 연결어미 '-아'와만 공기하며, (6)과 같은 문장은 쓰이지 않는다.

4. <말다>

'말다'는 제주 방언에서 본동사의 기능이 강하며 보조동사, 보조사의 문법 기능도 있다(문순덕, 1999. 참조).

(7) 가. 먹고야 말켜. (먹고야 말겠다.)

나. 남편이 죽게 되고 말았주. (남편이 죽게 되고 말았다.)

(7)에서는 연결어미 '-고'와 보조동사 '말다'가 공기하고 있다.

(7가)에서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연결어미 '-고야'와 의도의 선어말어미 '-(으)크-'가 공기하기 때문이다. (7나)에서 과거시제 형태소 (-았-)가 쓰여서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이 죽게 되었다.'라는 문장에 보조동사 '말다'가 쓰여서 그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즉 남편이 죽게 된 사실을 확인, 강조하고 있다. 원래 '말다'가 본동사로 쓰일 때는 '행위 금지'의 의미가 있는데 보조동사의 문법 기능이 있을 때는 그 의미가 '행위 완료'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부정의 의미는 없다.

5. <있다(있다)>

'있다, 오다, 가다'는 진행의 보조동사인데 그 기능을 살펴보겠다. 제주 방언 '이시다/있다, 시다/싶다'는 중앙어 '있다'에 해당한다. '있다'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문순덕, 2000.) 논의해 보았다. 여기서는 주로 보조동사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8) 가. 어멍 밥 먹업 서라. (어머니가 밥 먹고 있더라.)

나. 학교서 놀아 시냐? (학교에서 놀았느냐?)

문순덕(2000 : 57)에서는 '-암시-/-아시-'를 선어말어미로 보아서 붙여 썼는데(놀암서라/놀아시냐) 예문 (8)처럼 띄어 쓴다면 보조동사의 기능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앙어에서 '-고 있다'가 현재 진행을, '-아 있다'가 과거 완료의 상을 나타내는데 제주 방언에서도 '-암시-'는 '-고 있다'처럼 현재 진행, '-아시'는 '-아 있다'처럼 과거 완료의 상 기능이 있다. 보조동사를 추출해 보기 위해서 (8)처럼 띄어쓰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붙여서 발화된다. 물론 이때는 보조동사의 기능보다 선어말어미의 기능이 강하다. 즉 형태상 선어말어미이지만 문법 기능면에서는 보조동사와 같다. 여기서 선어말어미 '-시-'는 '시다'에서 문법화되었으며, 중앙어처럼 보조동사의 형태가 뚜렷하지는 않다.

(9) 가. 집이 가 시라. (집에 가 있어라.)

나. 나가 돈을 내 시쿠다. (내가 돈을 내어 잊겠습니다.)

(9)에서 제주 방언 '시다'는 중앙어 '있다'와 마찬가지로 보조동사의 기능이 있음이 확실하다. (9)는 '-아 시다'의 통사 구조인데 동작의 완료 기능이 있다. (9가)는 명령형어미 '-아라'와 결합되었다. 즉 명령문은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에 발생하므로 과거 완료가 될 수 없다. (9나)는 굳이 중앙어로 해석하자면 위와 같지만, 그 의미는 '내가 돈을 대신 내겠습니다.'이다. 제주 방언이 중앙어로 잘 직역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으)크-'가 '시다'와 결합되어서 미래 완료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9)에서 보듯이 제주 방언에서 보조동사의 형태는 '시다'이다.

예문 (8)에서 알 수 있듯이 '-암 시-'는 현재 진행을, '-아 시-'는 과거 완료를 뜻한다. 중앙어와 비교해 보면 현재 진행인 경우 연결어미 '-고'와 선어말어미 '-암-'이 대응되고, 과거 완료인 경우에 연결어미 '-아'가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 그리고 '있다'가 보조동사로 쓰일 때의 형태는 '시-'로 실현된다. 어쨌든 제주 방언에는 중앙어 '-고 있다'의 통사 구조가 없다.

'난 호미를 ㄱ정 잊져.(나는 낫을 가지고 있다.)'에서 '있다'가 보조동사로 쓰이고 있는데, 중앙어인 '-고 있다'와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 현재 진행의 의미로 쓰일 때에 선행 본동사가 동작과 과정의 동사여야 하는데, '가지다'는 소유 상태의 의미가 강한 동사여서 현재 진행의 의미가 없고, 소유의 상태 지속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는 '-고 있다'의 통사 구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6. <가다>

보조동사 '가다'도 진행의 의미가 있으며, 중앙어와 크게 다른 점은 없다.

- (10) 가. 일이 잘 되어 감신게.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네.)
 나. 가윈 집이 간게. (그 아이는 집에 가더라.)

여기서도 보조동사는 연결어미 '-아'와 공기하고 있다. 원래 '가다'가 이동 동사여서 진행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10가)는 동사 '되다'의 의미를 강화해 주면서 그 진행 상태, 이동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일의 진척 정도를 알 수 있다. (10나)에서는 '가다'가 본동사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도 단순히 집이라는 대상을 향한 이동, 즉 도착 대상을 뜻한다. 따라서 본동사로 쓰일 때는 본래 어휘 의미(行)로 끝나지만 보조동사로 쓰일 때는 선행하는 본동사의 의미가 진행되는 정도/움직임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7. <오다>

'오다' 역시 진행의 보조동사이다. 동사 '가다'가 출발점에서 도착점(近→遠)을 향하는 것이라면, '오다'는 도착점(遠→近)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 동사 역시 동작성 동사여야 한다.

- (11) 가. 무시거 ㄱ져 와서? (무엇을 가져 왔느냐?)

나. 강 뿡 상 읍서. (가서 보아서 사서 오십시오.)

(11가)에서 보조동사 '오다'는 연결어미 '-아'와 공기한다. 여기서도 가져 오는 행위의 이동이 나타난다. (11나)에서 '오다'는 본동사로 쓰이고 있다. 단순히 도착점으로 이동하는 동작이 나타난다.

중양어에서 '날이 밝아 온다.'처럼 '오다'가 형용사와 공기하는데, 제주 방언인 경우 보조동사 '오다'보다는 선어말어미 '-암-'이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날이 붉암저.(날이 밝고 있다.) / 날이 붉아 완저.(날이 밝아 오고 있다.))

8. <보다>

'보다'는 시행 보조동사이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제주 방언에서 '셈'의 형태도 쓰인다.

(12) 가. 밥 먹어 보주. (밥 먹어 보자.)

나. 걸어 봅서. (걸어 보십시오.)

다. 일 흥단 보난 어둑엇저. (일 하다가 보니까 어두웠다.)

(12가)에서 '보다'는 밥 맛이 어떤지 시험해 보자는 의미가 있다. 또는 '밥 먹자'라는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화자의 먹는 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이런 발화가 듣기에도 부드럽다. 물론 청유형어미와 결합되어서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12나)에는 화자는 청자가 잘 걷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걸어 보라는 의미가 있다. 보조동사 '보다'는 선행 동사의 동작을 실현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이 '보다'에는 화자의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12다)에서 '보다'는 본동사로 쓰이고 있다. 이때 의미는 '뵈'이다. 이는 중양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13) 가. 야원 밥 먹고픈 셈이여. (이 아이는 밥 먹고 싶은가 보다. / 싶

은 모양이다.)

나. 아방이 경 곶은 생이여.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는가 보다. / 말한 모양이다.)

다. 지네 말 곶는 줄 모르는 생이여. (자기네 말 하는 줄 모르는가 보다. / 모르는 모양이다.)

(13)에서 보듯이 '생'은 추측 보조형용사인 '보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어미 '-ㄴ/는'과 공기한다. 그런데 '생'은 지정사 '이다'와만 통합함을 알 수 있다. 중앙어에서 의존명사 '듯, 양'이 동사 '하다'와 통합되듯이, 제주방언에서 '생'은 '이다'와 통합하는 명사이다. 따라서 '명사 생+이다'가 통합되어서 보조형용사로 쓰이고 있지만 보조용언의 성립 조건인 보조적 연결어미와는 공기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생'은 중앙어 '-ㄴ/는가 보다'나 '모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생'의 주 기능은 의존명사인데 '이다'와 통합해서 '추측/짐작'을 나타내는 보조형용사의 부차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이다'는 선행 요소인 동사, 형용사(좋은 생이여.)와 공기한다.

중앙어에서 명사 '모양'은 추측이나 짐작의 의미로도 쓰인다. 이때 '모양'은 지정사 '이다'와 결합해서 서술어로 쓰이며, 제주 방언 '생이다'와 의미·통사 구조가 같다. (13)에서 명사 '생'이 화자의 추측이나 짐작의 의미로 쓰인 것은 발화된 문장이 화자의 경험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는 생이다'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짐작이나 추측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제주 방언 '-ㄴ/는 생이다'가 중앙어 '-ㄴ/는가 보다'와 대응되므로 '생이다'에 보조형용사 '보다'의 기능이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보다'는 화자의 추측/짐작의 의미가 강하다.

9. <주다>

'주다'는 봉사의 보조동사이다.

- (14) 가. 돈 이시믄 꺾와 주라. (돈 있으면 빌려 주라.)
나. 그 책 가의 쥐 불라. (그 책 그 아이 주어 버려라.)

(14가)에서 '주다'는 보조동사로 쓰이고 있다. 즉 '돈 빌려라'보다는 보조동사 '주다'가 쓰여서 완곡한 부탁의 의미가 있다. 원래 '주다'는 남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상황, 도움을 주는 상황인데, 보조동사로 쓰일 때도 그 의미가 남아 있다. 그래서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부탁하는 의미가 있다. 즉 '나를 위해서 돈을 빌리라'는 부탁의 의미가 있다. (14나)에서 '주다'는 본동사로 쓰이고 있다. 이때에도 동사 '주다'는 행위의 이동을 나타낸다. 즉 '그 아이라는 대상에게 책을 주다'라는 뜻이어서 본동사나 보조동사일 때의 의미는 같다.

10. <지다>

'지다'는 원래 본동사이던데 보조동사, 피동접사 등으로 문법화되었다 제주 방언에서도 문법 기능이 다양하다. '지다'는 주로 피동 보조동사로 다루어지는데 원래 본동사일 때의 의미는 "落"(滅, 負)이다. 연결어미 '-어'와 통합해서 '-어 지다'가 쓰이면 간접 피동문이 된다. 그런데 동사 '지다'를 단순히 피동형이라 하기는 어렵다. 피동 접사의 기능도 있고, 합성어가 되기도 한다. 또한 서정수(1994 : 552)에서는 기동 보조동사로 다루었다. 즉 본동사를 기동 상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간단히 보조동사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5) 가. 난 이디 살아 저시믄 좋켜. (나는 여기 살아 졌으면 좋겠다.)
나. 어둑기 전이 일 멉쳐 지카? (어둑기 전에 일 끝내 질까?)
다. 느 그 문제 풀어 지크냐? (너는 그 문제 풀어 지겠니?)
라. 폭낭 아래 그늘 점저. (팽나무 아래 그늘 지고 있다.)

(15)에서 '지다'는 연결어미 '-어'와 공기하며 [피동성]의 의미 자질을 갖

고 있다. 즉 선행 동사와 '-어 지다'가 통합되어서 마치 합성어처럼 보이지만 여기서의 간접 피동의 문법 기능이 있다. (15가)는 화자가 스스로 이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외부적인 여건이 허락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임을 뜻한다. 여기서 '살아+지+어시민'에서 보조동사 '지-'는 본동사의 동작이 이루어져서 그 상태가 유지됨을 의미한다. 즉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다. (15나)에서 화자가 원하는 시간까지 일을 마칠 수 있을까, 즉 그러한 상태로 될까 라는 뜻이며 [피동성]이 있다. 왜냐하면 화자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든지 등 끝낼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을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 여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15다)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런 여건이 성립해야 하므로 화자는 주어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한편으로는 염려하는 마음도 있다. 따라서 주어가 능동적으로 풀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능력이 필요한 피동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15)에서 '지다'는 본동사의 행위가 지속되는 '그러한 상태로 되다'의 의미가 있다. 또한 '-어 지다'는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생할길 바라는 화자의 바람도 내포되어 있다. 보조동사 '지다'의 선행 요소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다.

(15라)에서 '지다'는 본동사이며 그 의미는 '落'이다.

(16) 가. 날이 붉아 점저. (날이 밝아 지고 있다.)

나. 야의 양지가 곱닥헤 젓저. (이 아이 얼굴이 고와 졌다.)

(16)에서 형용사와 통합된 '지다'는 앞에서 본 [피동성]의 의미보다는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성]의 의미가 강하다. (16가)에서 형용사 '붉다'가 '지다'와 통합한 '붉아 지다'는 동사이다. 이때 '지다'는 [기동성]이라고 한다. '붉아 지다'는 '밝아 지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동작의 변화 과정이 드러난다. (16나)에서도 '곱닥하다(곱다)'는 형용사인데 '지다'와 결합한 '곱닥헤 지다'는 '고운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지다' 역시 형용사를 동사로 변화시키는 문법 기능이 있으며 [과정성]의 의미가 있다.

11. <고프다(-고 싶다)>

제주 방언 '-고프다'는 중앙어 '-고 싶다³⁾'에 해당하는 희망 보조형용사이다. 연결어미 '-고'와 보조형용사 '시프다'가 '-고프다'로 융합되어서 한 단어처럼 쓰인다. 즉 앞에서 논의한 보조동사의 형태, 기능과는 다르다. 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띄어쓰기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구별이 안 된다. 이는 동사어간에 연결되는 의존형태소이며 '-고프다'가 단독으로 쓰일 수도 없지만 선행 동사어간과 결합되어야만 희망의 의미가 있다.

제주 방언에서 실제 발화시에는 축약형인 '-고프다'가 쓰이며, 본형인 '-고 싶다'는 젊은층과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에서 주로 쓰인다.

(17) 가. 난 집이 가고프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

나. 우리 아이 보고팡 왓저. (우리 아이 보고 싶어서 왔다.)

다. 먹고프다, 자고프다, 놀고프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놀고 싶다.)

(17)에서 보듯이 '-고프다'의 선행 요소는 동사이다. 중앙어 '싶다'가 보조형용사로서의 문법 기능이 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비해서 제주 방언에서는 형태적으로 보조용언으로서의 식별이 어렵다. 즉 '집이 가고 프다(집에 가고 싶다.)'라는 문장에서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했을 경우에는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는 '-고프다'가 단일어처럼 쓰인다고 볼 수 있다.

(18) 가. 바당이 가고정 한다. (바다에 가고 싶다. / 가고자 한다.)

나. 가의영 놀고정 한다. (그 아이와 놀고 싶다. / 놀고자 한다.)

“-고저/구장/구저/고정/구정/구정’(-고자)은 용언 어간에 붙어서 앞으로

3) 최학근(1992 : 1722)를 보면 중앙어 '싶다' 형이 '시푸다'(충남, 전남, 전북 전지역), '시프다'(충남, 충북, 전북 전지역), '잡다'(전남, 전북 전지역), '푸다'(평남 전지역, 평북 용천 지역) 등으로 실현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제주 방언과 연관지을 수 있다.

제주 방언의 보조용언 연구

하고 싶거나 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제주어사전 : 45)라 정의하고 있다. 이때에는 ‘의도’와 ‘목적’의 의미가 강하다.

(18)에서 ‘고정 흐다’의 통사 구조가 쓰인 경우에는 주어가 1인칭이며 화자와 동일할 때이다. 이 문장은 주어 즉 화자가 하고 싶은 욕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즉 꼭 그렇게 하고 싶은 의도의 의미가 강하다. 앞에서 본 단순한 ‘희망/바람’의 의미보다 강하다. ‘-고 싶다’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미래에 일어나길 바라는 화자의 주관적 감정이 드러난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 희망 보조형용사로 쓰이는 ‘-고프다’와 ‘-고정 흐다’는 화자의 바람 정도에 차이가 있다. ‘-고프다’에는 불확실한 희망의 의미가 있다면, ‘-고정 흐다’에는 확실한 믿음/희망의 의미가 있다. 또한 ‘-고 시프다’ 형보다는 축약형인 ‘-고프다’ 형의 쓰임이 보편적임에 비해서, ‘-고정 흐다’는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의 통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8)에서 ‘-고정’은 동사 ‘흐다’와만 공기하며 이때의 의미는 ‘-고자 한다’/‘-고 싶다’이다.

‘가고정 흐다’를 ‘가고자 한다’로 해석한다면 이 문장은 화자의 희망보다는 ‘의도/목적’의 의미로 쓰였다. 물론 희망도 화자의 욕망 속에 포함되는 뜻이다. 욕구 정도를 표현하자면 ‘싶다’보다는 ‘-고자 한다’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19) 가. 나고져 식브녀. (월인천강지곡, 132 : 고영근, 1987 : 103)

나. 뉘 아니 좃줍고져 흐리. (용비어천가, 78)

중세국어인 (19가)에서 ‘-고져 식브다’는 희망 보조형용사이다. 이것은 현대국어 ‘-고 싶다’로 변했는데, 제주 방언과 비교해 보면 (18)에 쓰인 ‘고정 흐다’와 연관지을 수 있으며, ‘-고 싶다’의 의미로 쓰일 때이다. 즉 연결어미 ‘-고져’나 ‘-고정’은 같으며, ‘식브다’가 쓰일 자리에 제주 방언에서는 ‘흐다’가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보통 ‘흐다’는 본동사로 쓰이는데 연결어미 ‘-고자’와 공기할 때만 ‘싶다’의 대응어로 쓰였다고 여겨진다. 제주 방언에서 연결어미 ‘-고’가 ‘시프다’와 결합해서 ‘-고프다’로 융합되어 ‘싶다’의 의미로 쓰이기 때

문에 '-고정 시프다'는 '-고정 흐다'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나)에서 의도형 연결어미 '-고저'와 '흐다'의 공기 현상이 제주 방언은 물론 중앙어와도 같다.

(20) 일이 잘 될 상 시프다. (일이 잘 될 성 싶다. 제주도편 IX)

이는 의존명사 '상'과 보조형용사 '시프다'가 통합되었는데 중앙어와 그 기능이 같다.

중앙어에서 '싶다'는 '희망, 의심, 추측' 등의 의미가 있으며 연결어미 '-면, -르까' 등과도 공기하는데 제주 방언에서는 주로 '희망'의 의미로 쓰이며, 연결어미 '-고'와만 공기한다.

위에서 보듯이 본동사로 문장이 끝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러한 행동이 일어남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데 비해서, 보조용언이 쓰이면 객관적인 사실에 화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겹쳐지면서 보조용언의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더라도 본용언 단독으로 쓰일 때와 보조용언이 더해질 때의 기능이 조금은 다르다. 여기에 보조용언의 의미와 통사 기능이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제주 방언 보조용언의 기능을 대강 살펴보았다. 보조용언 중에서 '두다, 불다, 나다, 잇다, 가다, 오다, 보다, 주다, 지다' 등은 연결어미 '-아'와 공기하며, '말다, 시프다'는 연결어미 '-고'와 공기한다. 중앙어에서는 연결어미 '-고'와 보조동사 '있다와 나다'가 공기하는데, 제주 방언에서 이 통사 구조는 쓰이지 않는다. 앞에서 논의한 보조용언에는 본용언의 주 기능이 있는데 '-고프다'의 본용언의 통사 기능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주 방언의 보조용언은 형태나 기능면에서 거의 중앙어와 유사하지만 '두다, 말다, 잇다, 썩이다, -고프다, -고정 흐다' 등에서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보조동사 '불다(버리다)'는 중앙어에 비해서 본동사의 기능이 약하다. 보조동사 '나다'는 연결어미 '-아'와만 공기하며 중앙어처럼 연결어미 '-고'와는 공기하지 않는다. 보조동사 '있다(있다)'는 보조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시다' 형태가 우세하며 선어말어미 '-암-/-아-'와 결합되어서 역시 선어말어미로 문법화되었다. 보조동사 '오다'는 중앙어처럼 생산적이지 않으며, 그 자리를 선어말어미 '-암-'이 대신하고 있다. 추측의 보조형용사 '보다'의 의미로 쓰이는 '생이다'는 제주 방언의 특징이기도 하다. 보조형용사 '싫다'에 해당하는 제주 방언에는 '-고프다'와 '-고정 하다'가 있다.

앞으로 제주 방언의 보조용언을 더 찾아보고 그 기능도 좀더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7), 표준중세국어문법, 탑출판사.
문순덕(1999), 제주 방언의 부정 표현 연구, 제주대박사학위논문.
_____ (2000), 제주도방언 '시다'의 문법화 현상, 영주어문 2, 영주어문연구회.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이기동(1986), 조동사의 의미 분석,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최학근(1992),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최현배(1975), 우리말본, 정음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방언자료집>, 제주도편 IX .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현평효 외(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